

자연·문화의 아름다움 '만끽'

정읍은 가을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도시다.

내장산의 화려한 단풍은 물론, 구절초꽃의 순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구절초꽃축제', 정읍사의 전설이 함께하는 '정읍사문화제'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올해도 정읍의 가을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가을,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과 구절초의 하얀 물결, 정읍사의 전설이 깃든 문화제가 하나로 어우러진 정읍을 찾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내장산 단풍

▲ 구절초꽃축제, 하얀 구절초의 향연

정읍 구절초지방정원에서 열리는 구절초꽃축제는 매년 가을, 구절초가 피어나는 시기에 맞춰 개최된다. 올해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펼쳐진다.

'구절초'는 하얀 꽃잎과 진한 향기로 사랑받는 가을 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음력 9월 9일에 가장 약효가 좋다는 설 때문에 붙여졌다. 구절초가 만개한 구절초지방정원 일대는 온통 하얀 꽃밭으로 변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구절초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꽃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이번 구절초꽃축제에서는 꽃경쟁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됐다.

구절초를 이용한 향초 만들기, 구절초차 시음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체험이 제공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6일 오후 5시에 펼쳐지는 개그맨 김재욱(김재룡)의 사회로 가수 김다현, 박창

근, 김용임, 박강성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12일에는 개그맨 김영철이 강연자로 나서 관객에게 특별 강연을 선보인다.

이학수 시장은 "구절초꽃축제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 중 하나로,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정읍을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읍사문화제, 사랑의 전설을 담은 문화행사

정읍사의 슬픈 전설을 바탕으로 한 정읍사문화제는 매년 깊어가는 가을 밤, 정읍천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백제시대 한 여인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는 '정읍사'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가요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요에 얽힌 전설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정읍사문화제는 올해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통 행사가 마련돼 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올해 정



정읍사문화제



정읍사 달빛사랑숲

구절초꽃축제 내일부터 11일간 정읍천 배경으로 정읍사문화제 26~27일 문화예술공연 등 다채 달빛사랑숲, 야간힐링 공간으로 내장산 단풍 구경도 빼놓을 수 없어

▲ 달빛 속 사랑 이야기, 정읍사 달빛 사랑 숲 새로운 야간힐링 공간으로 떠올라

시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정읍사'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야간 테마공원,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을 완공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시기동 야간숲에 위치한 이 공원은 전복 10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6월에 완공됐다. 앞으로 다양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야경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원은 8개의 존과 16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빛의 터널, 아날로그 라이트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달밤의 판타지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현재는 무료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은 무료, 시외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유료화가 예정되어 있다. 입장료 결제 시 교환권 또는 지역화폐로 교환해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읍사 달빛 사랑 숲 내 기념품샵도 올 10월에 정식 개장해 방문객들에게 정읍사와 달빛 사랑 숲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다.

▲ 내장산, 단풍으로 물드는 절경

전북의 대표 명산인 정읍 내장산은 가을이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하는

명소로 손꼽힌다. 매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에 이르는 단풍은 내장산을 붉게 물들여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내장산의 단풍은 일찍이 '단풍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내장산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단풍 절경은 방문객들에게 가을 산행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내장산 인근에 있는 내장산 문화광장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 있다. 전북 최대 실내 놀이시설인 '천사하이로드'를 시작으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시립박물관, 잔디광장 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 좋다. 특히 곧 순환열차 운영을 앞두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다채로운 풍경을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TV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으로 이름을 알린 이원일 셰프와 협업해 내장산 상가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 음식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글로벌학산고등학교 실습실에서 이원일 셰프가 직접 개발한 신메뉴에 대한 교육이 상가 업소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후에는 '한식대접 2' 출연으로 인지도가 높은 전주 국제요리학원 정정희 원장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실제 주방에서 신메뉴 조리 과정을 지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절초지방정원

읍사문화제의 주요 행사로는 채수이레, 정읍사 여인제례, 기념식, 축하공연, 정읍사가요제가 진행되며, 먹거리 부스와 정읍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26일 정읍사문화제 및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인기 가수 조항조, 별사랑, 김소유, 조연비, 김태연, 방서희가 출연하고, 27일 정읍사가요제에는 장운정, 정수라, 신인선이 출연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야간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학수 시장은 "1300여년전 정읍사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0월 말에 정읍을 찾아 가을의 정취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에서 가을밤 추억 여행

제32회 남원 흥부제 통기타 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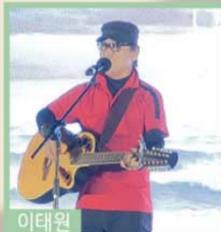
10월 6일(일) 오후 8시 ~ 9시

남원 사랑의 광장 무대(남원시 어연동 37-19)

출연진



사회 송미령



이태원



최형준



박영일



백명주

주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